

태양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한 전인민적대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경축한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상보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회색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은 온 민족, 온 겨레의 가장 성스러운 명절이며 인류사적대경사이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중지부를 찍고 사회주의강국의 존엄높은 주인이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관복을 누리며 선군조선은 그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랐다.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태양절이 안아온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이 크나큰 감격과 환희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은 조국청사에 특기할 전인민적인 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되었다.

4월의 대축전은 주체의 태양경애하는 수령님께와 위대한 선군태양어버이장군님께 찬만군민이 드리는 영원무궁한 영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태양절경축행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위력, 필승불패성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실적과 불멸의 업적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뜻깊은 4월 찬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차넘쳤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대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굳은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김일성훈장을 수여해드리었다. 이것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

우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 불멸의 력사를 천추만대에 빛나게 하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조국과 인민의 숭고한 경의의 표시로 된다.

절세의 예극자, 전설적영웅들을 태양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모시려는 찬만군민의 념원이 실현되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석하에 성대히 제작되었다.

태양영생의 언덕에 거연히 솟은 절세위인들의 동상은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민족적대번혁의 100년사를 빛내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의 상징이며 불멸의 존엄으로 긍지높은 선군조선의 최상최대의 존엄이 고여 있다.

장대제언덕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가 수령영생의 기념비로 정중히 건립되었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들이 일떠선것은 수령의 위업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전변되었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교향집을 원상대로 더 잘 보존하고 혁명사적관의 내외부의 면모가 일신된것을 비롯하여 만경대혁명사적지가 보다 아름답고 숨뉠하게 꾸러졌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한 태양절경축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서깊은 김일성경기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여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어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선군조선의 새시대가 열리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거창한 전환기가 펼쳐졌다. 이 력사의 철리를 보고대회는 온 세상에 다스금 자랑스럽게 선언하였다.

전국의 도, 시(구역), 군, 련합기업소 등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보고대회 및 보고대회에서도 절세위인의 혁명생애와 거룩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목소리들이 힘차

게 울려나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영광의 열병식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은 전민족과 전세계를 무한히 격동시키었다.

은 열병광장이, 온 나라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찬만년 수령결사옹위의 대오, 최정예의 백두산혁명군군이 무진막강한 국력을 시위하며 열병식장을 도도히 굽이쳐갔다.

무적의 열병대오를 수도시인들이 펼쳐나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 열광의 화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일단결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태양기를 영원히 휘날리며 선군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역세계 나아갈 찬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축도야회 《태양조선은 무궁번영하리라!》가 태양절의 밤하늘을 환홀하게 수놓았다.

장쾌하게 터져오른 4월의 축로는 찬만년 부강번영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는 환희의 불보라, 찬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와 혼연일체를 이룬 태양조선의 국력을 떨친 승리의 불보라였다.

평성, 신의주, 해주, 강계, 혜산, 함흥, 청진, 원산, 개성을 비롯한 도시들에서의 축도야회도 만사주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었다.

선군조국의 밤하늘에 신비하고 환홀한 불보라가 끝없이 펼쳐졌다. 군중들은 인민을 위해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한평생의 로고과 어려와 눈물을 적시었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려 할 태임을 그려보며 필승의 열의로 가슴불태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제14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태양의 존엄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들로 환홀을 이룬 축전장을 수십만명의 인민군인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 외국손님들이 참관하였다.

각 도에서 열린 김일성화축전회장들로도 참관자들이 그칠새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고결한 총정과 숭고한 도덕력, 불면불휴의 령도에 의해 세계적인 기념비로 솟아오른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이 개관되었다.

무장장비관은 화승대조차 변변히

없어 땅국의 치욕을 당해야 했던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경애하는 대원수님들의 선군업적을 전하며 주제조선의 총대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만년제보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태양절 100돐을 맞는 우리 인민에게 선물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불타는 총정으로 장대를 젓어들게 하였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대공연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가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모시고 태양의 력사를 만대에 빛내여갈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쳤다.

성대한 행사들과 함께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는 태양절경축분위기로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기념주화가 발행되었다.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100권이 출판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활동력》, 《인민들속에서》 제100권을 비롯한 위대성도사들이 발행보급되어 태양절을 빛내이는데 기여하였다.

개성시 박연폭도주변의 천연바위에 있는 찬만군민의 총정의 결정체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라는 만년대개의 금발이 새겨졌다.

백두산3대장군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동지》, 《팔저산의 아들 김정일동지》,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가 신의주시에 훌륭히 세워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비롯한 400여점의 사진들이 전시된 중앙사진전람회, 절세위인들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된 2만여종에 3만여부의 각종 출판물들을 보여준 국가도서전람회는 천출위인들의 업적을 깊이 체득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국의 미술가들과 예호가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열린 전국미술축전, 국가산업미술전시회 그리고 전국농민보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패기와 정열에 넘치시어 어제는 공장을 찾으시고 오늘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력을 총휘부진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 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최근 조국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은 김정은동지는 사난의 력사에 영원한 총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는 연설의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로동당 김정은제1비서까지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것은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어제날의 약소국이 온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런 경이적사건은 김일성수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대를 이어 김정은시대에 들어날것이라는데 대하여 평하였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들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영상사진들을 모시고 열병식에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이 김일성시대의 열병식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수령의 항일빨찌산

입, 조선우표전시회, 잊을수 없는 영화들의 상영 등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더욱 새차게 분출시키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무대 《위대한 수령님은 영원한 우리 어버이》, 농업근로자들의 회고무대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 농민들과 함께 계신다》, 녀맹원들의 대합창공연 《어버이수령님과 녀성들》, 학생소년들의 회고무대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해님》, 전각유치원어린이들의 종합예술공연도 관람자들을 감동시키었다.

평양남도예술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 량강도예술인들과 혜산시 각계층 근로자들의 대합창공연 등 전국각지의 경축무대들에서 태양찬가들이 온 나라 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청년학생들의 야회, 집단체조들, 4월의 명절로리축전 등은 태양절을 경축하는 인민의 행복과 랑만을 더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대회에 경애하는 김정은선생님의 령도따라 태양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선군위업계승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만경대산악체육축전, 전국래전도축전, 빙상회기모범출연, 수중제트무용모범출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행사들도 태양절경축분위기를 더욱 돋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중요대상들이 련이어 완공되어 온 나라를 기쁘게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대웅단과 찬만적인 령도에 의해 선군조선의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력사의 기념비로 일떠선 회천발전소 태양절을 앞두고 준공하였다.

회천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10년 이상 걸려야 한다던 대규모동력기건설을 단 3년동안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도록 하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인민사랑을 하고 수도 평양으로 옮기치게 호르코였다.

동해의 바다를 길들이며 거창하게 일떠선 단련항에서 배고동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었다.

단련항은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강성국가건설구상과 정력적인 령도, 크나큰 로고에 의하여 솟아난 선군시대의 대기넘비적창조물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에 이바지하게 될 귀중한 사회주의제부이다.

부대 근무차림을 한 기마총대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김일성수령 탄생 100돐 열병식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하신 연설에 대해 남조선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터네트신문 《통신뉴스》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괴판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총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는 연설의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로동당 김정은제1비서까지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것은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어제날의 약소국이 온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런 경이적사건은 김일성수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대를 이어 김정은시대에 들어날것이라는데 대하여 평하였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들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영상사진들을 모시고 열병식에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이 김일성시대의 열병식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수령의 항일빨찌산

조국명 서해바다기슭에서는 대계도 간석지의 정복자들이 파산간석지 2개 단건설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남도-평양바다물수송관건설도 완공되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결정체로 수송관이 준공함으로써 수수천년 조국명기슭에서 출렁이던 서해의 바다물이 수도의 한복판으로 흘러드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다.

수도의 청춘거리에는 태권도모국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데 이바지할 태권도경기장이 조선식합각지방을 떠치고 웅장하게 일떠섰다.

618세멘트공장, 유기질복합비료공장, 소형착화관과 수지마대공장, 황봉광산, 흥남대경수산기업소 수산물종합가공공장 포장제직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드림프스산공정 등이 현대적으로 건설되어 조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을 전하며 평양곡산공정에는 강병이가공공정, 효소생산공정, 평양어린이식료품공정에는 콩우유가류생산공정, 평양담배종이공정에는 능력이 큰 위생용품생산공정이 새로 꾸러졌다. 수도의 만수대지구에 웅장하게 솟아난 초고층빌딩,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일떠선 만수교교기상점과 미래상점, 안남도도서관, 지방의 기계공장에 꾸러진 세상에 자랑할만 한 강성원 등은 강성국가의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 배후선 절세위인들의 사랑을 가슴뜨겁게 전하고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성대한 경축행사에서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조국과 혁명의 양양한 진도에 대한 확신을 간직하였다.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답게 새로운 주제100년대를 승리의 년대로 수놓아갈 불타는 맹세가 조국강산을 진감하였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만민을 격동시킨 태양절경축행사는 주제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듯듯이 일떠세우려는 찬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대축전이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만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장 고결한 총정과 의리속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 것이다.

주제101(2012)년 5월 7일 평 양

최근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의 룡라인유원지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룡라도에 근 100정보의 부지에 건설되고있는 유원지는 품용어관, 물놀이장, 유희장으로 형성되고 있다.

인민의 복리후생을 도모할 유원지개발이 마감고비에 이른 때에 그곳을 찾으신 것이께서는 현대적이며 특색있는 문화생활거점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건설하도록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날 최고령도자께서는 두개의 구역으로 배치된 유희장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이 서로 오갈수 있는 통로를 새로 설정하고 청량음료점을 더 멋있게 건설할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은 건설자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숭고한 인민관에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애착,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대한 최고의 중시, 인민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고결한 천품이다.

평양의 만수대지구에 키텔움하며 높이 솟은 초고층상림집들, 보통강변에 일떠선 만수교교기상점과 미래상점, 평안남도도서관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 하나 하나에도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생활상상을 위하시는 그의 심혈과 보살핌이 깃들여 있었다.

남조선 인터네트 홈페이지 《희망런데》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천재적인 사상리론, 뛰어난 령도력을 지녔을뿐 아니라 민중을 보살피는 한없는 민중사랑의 위대한 총품을 천품으로 타고난 위인이시다. 민중의 리익과 복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민

중사랑으로 하여 복의 민중은 오늘날 아니라 래일도 창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고 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중시의 관점과 부드럽고 친근한 정, 사려깊고 다정한 손길은 사람들의 심금을 매

답을 들으시고는 떠도 좋아하시는가고 다스금 웃으시며 그들의 식성까지 헤아려보신 그의 보살핌은 다정한 친부모의 정그대였다. 그의 모습은 항일빨찌산시절 어려운 조건에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김일성수령의 인자하

인 덕 정치 가

혹케 하는 무한대인 인력의 정화이다.

이것에서 지난 설명절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셨을 때 원아들을 꾸며주어 보살펴주시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식당에 들리시어 음식을 드는 원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더운밥을 먹는다 그릇을 손수 만져보시고 온반이 맛있는가고 다정히 물어보신 김정은최고령도자. 원아들에게 무엇을 먹고싶은가고 물으시고 국수를 좋아한다는

신 그 모습과도 같았다. 인민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탁상앞에서 말공부로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술결, 눈발,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수 있는 인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평생토록 인민들속에 계시며 정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수령님의 인민적정품을 체현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이다. 그의 품모에 대해 지난 4월 조국을 방문한 단둥의 한 재중동포기업가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은 들

던바대로 김일성수령과 김정일장군을 닮은분이어서 조국의 미래가 정말로 찬창하다고 감복을 토로했다.

오늘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이 더 많아야 하는 사회적조건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덕정치의 반영이다. 나라가 아무리 큰일을 안고 있다 해도 다른것은 줘미루고라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는것이 그의 요구이고 의도이다. 인민생활향상이 곧 그의 기쁨이고 보람이다.

지난 5.1절날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생산에 못지 않게 로동생활조건을 중요시하시는 것이께서는 공장주관에 새로 건설된 강성원을 찾으셨다. 수영장, 물놀이장, 목욕탕, 체육관, 전자동서관, 오락실 등을 갖춘 종합적인 문화, 체육 및 편의시설을 일일이 돌아보신 것이께서는 로동자들이 멋있게 꾸러진 강성원에서 문화휴식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패기와 정열에 넘치시어 어제는 공장을 찾으시고 오늘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력을 총휘부진하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 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

최근 조국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은 김정은동지는 사난의 력사에 영원한 총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는 연설의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로동당 김정은제1비서까지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것은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어제날의 약소국이 온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런 경이적사건은 김일성수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대를 이어 김정은시대에 들어날것이라는데 대하여 평하였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들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영상사진들을 모시고 열병식에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이 김일성시대의 열병식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수령의 항일빨찌산

부대 근무차림을 한 기마총대가 처음으로 등장하여 김일성수령 탄생 100돐 열병식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하신 연설에 대해 남조선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다.

인터네트신문 《통신뉴스》는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는 괴판많은 수난의 력사에 영원한 총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웠다는 연설의 내용을 전하면서 조선로동당 김정은제1비서까지 열병식에서 연설을 한것은 김정은시대의 개막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어제날의 약소국이 온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이런 경이적사건은 김일성수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대를 이어 김정은시대에 들어날것이라는데 대하여 평하였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 주요 언론들도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영상사진들을 모시고 열병식에 대해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이 김일성시대의 열병식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김일성수령의 항일빨찌산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새로 건설되고있는 룡라유희장 (←)의 일부와 룡라곱등어관 (↑)

본시기자 리 설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하게 맞이한 온 나라에 눈부리 뜨겁게 꽃바다가 펼쳐졌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태양상들이는 물론이고 심심산골로부러 외진 섬마을에 이르는 그의 현지도교사관들과 사적비들에게도, 그 어느 가정이나 일터에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축원의 마음이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넘친다. 개성문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과 평양의 거리마다에 펼쳐진 장관은 말할것도 없고 새로 눈이 번쩍 뜨이게 유희장이며 꿈동산인, 물놀이장을 비롯한 통라인민유원지가 꾸러지는 물우에 뜬 꽃바구니-우라도도 꽃배마냥 날실거린다. 다 멋있지만 제일 가슴뭉클하게 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신 만수대언덕의 꽃바다이다.

이 꽃바다에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강성변역하는 조국과 더불어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인민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다는 철리가 어려있다. 생전에 늘 함께 사업을 토의하고 마음을 나누시던 두분께서 영원히 태양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며 겨레를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만수대언덕으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든 사람들의 물결이 바다처럼 흐른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의 영생을 축원하는 북과 남, 해의 온 겨레의 마음이 여기에 아우로 되어났다. 세계 진보적인류의 애호와 흠모의 마음도 여기에 다 모였다. 아름다운 꽃바구니마다에 해살을 가득가득 물고 떨거미가 피어난 억만송이 꽃송이들이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끝없는 꽃세계를 펼쳤다.

꽃을 보니 한평생 우리 인민을 꽃처럼 아름답게 키워주시러 마음쓰신 수령님과 장군님이 못내 그립다. 태양이 있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품이 있어 인생을 꽃피운 우리 인민은 생의 온인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생전처럼 기뻐하시라고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과도 같은 아름다운 꽃을 삼가 올리는것이다.

한계단, 또 한계단 만수대로 오르는 이 마음에 추억길은 생각이 일렁인다. 42년 옥살이에서 포악무도한 겨울을 이겨내는 나에게 따뜻한 봄을 알려주던 길쭉꽃이 떠오른다. 15척의 담을 바람따라 날아넘지도 못했다 그 꽃씨는 날아가던 날새의 분비물과 섞여 사람사는 세상과 완전히 격폐된 생지옥의 강메마른 땅에 떨어져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흰 좁쌀알같은 꽃을 피웠는가, 정말 화려한 광경이었다. 10분도 되나 마나한 운동시간에 눈부리 아르게 피른 그 꽃은 나에게 꽃속에서 묻힌 고향 약산동대며 진달래 만발한 모교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정이며 전투임무를 마치면 꽃들이 활짝 피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십년전부터 손수 지렁이에서 우리 나라 기후에 적응시킨 희귀한 꽃까지 전문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장군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그 날

초상화를 잡지들에서 오려낸 붉고 아름다운 꽃속에 정히 모시여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꽃을 두고 글로써 다 표현 못할 인연을 일떠세워주시었다니 정말 놀랄기만 하다. 온 나라가 허허리미 조이던 고난의 행군시기의 심장이시고 친어버이인 수령님을 그리는 심정을 그이상 더 표현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갑우에 있으면서도 수령님을 것처럼 꽃속에 모시고싶어하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다 풀어주시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제일 좋은 날이라고,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라고 하시며 4월이 오면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 15일에는 만발한다고 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이런 꽃계절에 만민의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시었다고, 하여 세상사람들은 4월 15일을 하늘이 낸 날이라고 한다고, 세계에는 국가수반들이 많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뜻깊은 생일을 가지고있는 그 시각에는 없다고 하신 장군님.

하늘이 낸 꽃피는 날, 봄의 정서를 한껏 풍기며 온갖 꽃이 다되어 피어나는 4월에 만민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수령님을 영원히 꽃속에 모시려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해마다 4월이 오면 꽃들이 활짝 피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수십년전부터 손수 지렁이에서 우리 나라 기후에 적응시킨 희귀한 꽃까지 전문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장군님이시다.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그 날

수령님의 유혼을 거어이 꽃피우실 신념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금수산지구에 훌륭한 화초원을 일떠세워주시었다니 정말 놀랄기만 하다. 온 나라가 허허리미 조이던 고난의 행군시기를 정히 기억하는 장군님의 구상대로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나무묘목들이며 희귀한 꽃종자들, 시약들이 비행기에 실려 평양으로 날아오는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이것이 바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레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조선의 참모습》이라고 갈탄했다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가.

아직은 부족하고 어려운것이 많은 2000년 경예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현대적인 평양화초원구소를 꾸러주시었다. 지난해 3월 평양화초원구소를 몸소 찾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온실가득 피어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속에서 잠시라도 휴식하시기를 절절히 바라는 천만군민의 마음이 굽이치는 그 시각에도 우리 인민이 보다 행복한 정서생활을 누리게 하시려고 마음 쓰시었다.

우리 인민은 고운 꽃을 보면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께 제일먼저 드리고싶어한다. 오랜 세월 사람들사이에 서로 소박한 정을 나누던 꽃이 나누는 순교한 상징물로 되었다. 꽃도 향기도 모르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도 그 품속에서 아름다운 꽃 피어나 만사람의 축복속에 향기를 풍기게 되었다. 이 고마움과 행복을 아뢰이려고 나는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안길 지난 12년

동안 붉은 꽃을 정히 들고 만수대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곤 하였다. 그 품에 안기면 강철의 평장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전승열병식장을 도도히 누벼가던 그때처럼 저도 모르게 새힘이 솟구치고 전후 우리 부대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교시를 받아들던 그날의 감격이 생생히 되살아난다. 경예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정으로 다 주게 되었던 이 품이 조국의 품에 안겨 줌을 되찾고 성대한 국가연희장들과 뜻깊은 행사장들에서 그리워 모시고 격정의 환호성을 터치며 기념사건을 찍던 영광의 날들이 어제런듯 하다.

이번에 나는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예하는 장군님의 동상제막식이며 성대한 열병식,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개관식 등 국가적행사들에 참가하였다.

여러 행사장들에서 김정원최고령도자를 뵈다가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옵는것만 같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두분의 대원수님의 모습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그 영상에 그대로 안겨왔다.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최자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어버이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어 위대한 항일의 조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에서

꽃바다도 더 아름다운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피어나다.

이 꽃바다는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태양의 꽃들이 바다를 이룬 행성에 하나밖에 없는 위인칭송의 꽃바다이다.

인류력사와 더불어 꽃의 련사는 2억 5000만년전 꽃과 허머 세상에 꽃의 아름다움을 찬미하여 꽃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나라로도 있고 꽃과 관련된 명절도 있으며 꽃이름으로 불리우는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인류의 리상사회를 꽃피워주는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에 떠받들려 세상에 태어난 태양의 존함을 지닌 그런 명화는 일찌기 없었다. 중국과 기념,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은 실들이 꾸러지고 태양과 대륙, 위도와 경도를 넘어 김일성화와 김정일화전신회가 펼쳐졌다. 이룩난 꽃바람회들과 화초전시회들에서 태양의 꽃들이 특별상과 최고상들이 수여되었다.

이번에 전인류적인 축원속에 진행된 제14차 김일성화초전과 조선인민군장기 80돐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신회를 보니 내 조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

위인칭송의 마음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꽃바다를 이룬 축원장들에서 나는 겨레의 간절한 통일념을 가슴저리게 느꼈다.

백두대간이 뿔뿔이 뚫리면 무엇이든 내 나라 삼천리금수강산을 아름답게 수놓도록 피어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보니 생 각도 깊어진다. 출우후 운동원학

생들의 초창으로 목포에 갔을 때였다. 거리에서 자그마한 꽃방을 띄어 본 나의 발걸음은 무심결에 그리로 향하였다. 꽃방에 꽃처럼 환한 처녀가 있길래 무슨 꽃을 탐아서 그렇게 예쁘냐고 나는 인사말을 건네었다. 내가 자기 소개를 하자 뜻밖에도 꽃방치려는 《난 세상에 이룩난 꽃들을 띄우는 행운을 안고있거든요.》라고 조용히 말하는것이였다. 그 꽃이 무슨 꽃이나고 몰자 그는 그 꽃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라고 속삭이는것이였다. 지금도 따르는 한마음으로 붉게 물들던 처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우리들은 장군님의 품에 안길 때 남녘의 대학생들이 준 꽃씨봉투들도 가지고 왔다. 별빛눈을 빛내며 그들이 하던 말이 귀에 생생하다.

《북녘땅에 이 꽃들이 활짝 피어날 때면 우리들의 통일념원도 더 아름답게 펼쳐질것입니다.》

그들이 안겨준 꽃씨들이 비옥한 이 땅에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오레전에 제주도에 너들이 보내온 남해가의 동백꽃도 해마다 더 넘실하게 아지를 치고 곱게 피어서 그윽한 향기를 풍긴다. 강산에 넘쳐나는 꽃향기는 영원한 해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온 겨레의 마음의 향기이다.

태양의 꽃바다우에서 환한 미소로 누리를 굽어보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예하는 장군님을 우리러 나는 삼가 아뢰인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영원한 해님을 따라 백두에서 한나까지 통일된 꽃바다 펼쳐집니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이 세상 끝까지 높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우용각



지난 항일빨치산투쟁시기에 있는 일이다.

때는 1938년. 김일성주석의 친솔밑에 빨치산의 주력부대가 압록강연안 국경일대에 진출하여 일본군정권에 대한 심혈전을 벌리면서 창바이현(장백현)의 어느 한 수림속에 이르렀을 때였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류다오거우(6도주) 전투실제라는 뜻밖의 상서롭지 못한 소식이 기다리고있었다.

전투가 실패한 원인은 전투를 지휘한 립수산(일제에게 투항한절한자)의 공명성과 비겁성에 있었다. 립장(림장)일대에서 적들을 혼란시키는데 대한 임무를 받고 일부 령명을 인출하고 립장현에 나와있던 그는 주력부대가 국경일대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투항주의적정체를 가리우려 더우기는 공명성에 사로잡혀 부랴부랴 전투를 조직하였다. 적정도 제대로 해하지 않고 전투를 마구 조직하였다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조성되자 그는 서둘러 퇴각명령을 내림으로써 전투를 패배으로 끌고갔던 것이다.

사태를 료해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즉시 회의를 여시어 실패한 전투에 대해 심하게 분석하셨 하시면서 류다오거우수석적 전투를 다시 한번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당시 빨치산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누구도 그분께서 어떤 지략을 펼치실지 예측 못했다고 한다.

압록강연안에 자리잡고있는 류다오거우는 일제의 주요 군사요충지의 하나로서 여러개의 포대와 10여개의 화점을 설치한 높고 견고한 요성에 둘러싸여있었다.

주석께서는 먼저 여러차례의 정찰을 통해 적들의 경계태세와 동태를 손금보듯 장악하시었다. 그러시고도 웬일인지 출동명령은 내리지 않으시었다. 대신 빨치산의 대부대가 곧 류다오거우로 쳐들어간다는 내용의 통고장을 적들에게 보내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민중속에라도 같은 내용의 소문을 퍼뜨리도록 하시었다.

《유격대가 류다오거우를 다시 친다.》

《김일성장군이 직접 통솔한 대부대가 압록강연안에 출두했다는 데에 이제 인차 큰변이 난다.》

... 일전에 있는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 기껏 기고만장해있던 적들이 와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당장에 병력을 증강한다. 야간경비를 강화한다. 낯선 행인들을 단속한다 하며 야단을 퍼쳤다.

그러나 주석께서는 통고장이 쳐들어간다고 쏘아박은 날이 되어서도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으시었다. 전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명령

하실뿐이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상대편 적의 진영은 제풀에 맥이 빠져 헤이되기 시작하였다. 경계를 풀고 단속소동도 뜸해졌다. 이러한 때 두번째 통고장이 날아갔다. 역시 이번에도 같은 내용이었다.

적들의 진영에 또 복새통이 빚어졌다. 이번에는 경비인원을 증강하고도 마을에 놓이지 않아 야간에는 시가지 곳곳에 초물봉등을 내걸게 하고 온밤 빈초물을 두들겨대며 퍼눈이 되어 돌아쳤다.

하지만 유격대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헛물만 던진 어리석은 적들은 나름대로 《공산군도 류다오거우만은 치지 못한다.》, 《스열다오거우(12도주)나 자짜이수이(가재수)를 치고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들로 하여금 어쩔수없이 저들의 약점을 드러내보이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니 신묘한 지략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전투대오가 류다오거우위산에 전개를 끝냈을 때는 해가 방금 넘어간 뒤였다. 그곳에서는 성시가 한눈에 반히 내려다보였다. 예전한대로 도로바닥에서 총을 맨 몇명의 순찰병들이 어슬렁거릴 뿐이였다. 그나마 밤이 깊어지자 성시를 둘러싼 도성주변은 물론 온 시가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곳곳에 켜놓았던 초

결국 일제가 《공성철벽》이라 호언장담하던 류다오거우요새는 잠깐사이에 만신창이가 되고말았다.

총소리가 멎기 바쁘게 남녀로소가 맨발바람으로 거리로 뛰쳐나왔다. 감격적인 상봉, 뒤이어 터져오르는 만세의 환호, 치차오르는 삼단같은 불길...

그 광경은 말그대로 통고장이 부린 기이한 조화였다.

날로 더욱 험악하게 번져지는 리명박 《정권》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서버리기 위해 혁명무력이 특별행동을 곧 개시한다는 북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명령소조의 통고장이 울려진지 보름이 지나갔다.

그동안 남쪽에서는 전례없는 이 강경한 통고에 불안을 느끼며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경호를 조직한다. 《대응태세》를 갖추다 하는 북세력이 벌어졌다. 통고장이 명시한 《특별행동》이 무엇 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추측이 란무하고 그 예측가능성의 행동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한 경계와 군부의 엇갈린 시각들이 사회를 뒤숭숭하게 만들고있다.

과연 특별행동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것인가.

모두가 긴장하여 예의주시하고있는 북의 특별행동과 관련하여 우에서 언급된 항일빨치산시기의 통고장이야 하는 시사하는바가 많다.

재중동포 허국철

삶의 맛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미동포가 격찬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삶의 맛이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글은 공화국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휘황찬란한 불꽃이 하늘에 수놓아지고 대동강의 옥류교와 대동교에서 불꽃폭포가 쏟아지는 경축행사장에 대해 언급하고 글은 경축행사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빛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강국건설업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투철한 자주사상으로 무장하고 자기 령도자를 일심단결로 보위하는 인민이 있는 공화국이야말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철옹성으로 다져진 멋진 나라라고 격찬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4월 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인원들과 하신 담화에서 일군이 어떤 인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인민들의 생활 문제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

려야 하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늘 사색하고 진심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있다는 령도철학이 있는 나라, 이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가!

제국주의나라들과 그의 노예로 된 나라들이 이렇게 멋진 나라에 대해 인연이 어찌되고저지고 하면서 거짓말을 불어대지만 그것의 저들의 령도감을 표현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남조선과 미국에 사는 일반사람들의 삶을 보자.

인간의 삶에서 기본요구로 되는 주택과 11년간의 교육 그리고 의료혜택이 무료로 제공되는 사회주의나라이북과는 달리 남조선과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99%의 일반사람들은 돈뜨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갈 걱정부러 하지 된다.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걸거리로 쫓겨나는데 그들의 현실이다. 또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지금 남조선은 고학력청년실업자의 수에서 세계최고이다. 미국

자주와 단합, 평화통일의 길에서

5월 13일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 51돐이 되는 날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상설적인 조직이다.

돌이켜보면 외세와 남조선 미국배주세력의 반평화, 반통일행동을 짓부시고 평화와 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전민족의 통일기운을 고조시키시는 것은 전후 우리 민족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였다. 당시 정립된 정세를 통찰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자재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북과 남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통일문제를 논하는 협상제안을 내놓으시고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의 연합을 실현하며 정치, 경제, 문화적면과 인사문제 등을 실시할때 대한 획기적인 방안도 명시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그들은 《가자 북으로, 오

다 세계 도처에서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리명박은 4년전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랑발림의 공약을 내세웠다. 리명박이 《대통령》이 된 후 사람들에게 차레진것은 가난과 억압. 폭력 그리고 죽음이였다. 리명박은 자기와 극소수 측근들의 부귀영화에만 퍼눈이 되어 날뻐본 99%의 국민들을 더 극심한 가난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리명박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과 검찰은 폭력으로 죄없는 시민들을 수색, 검거, 구속하고있다. 그야말로 인권이 목살된 곳은 바로 남조선이다.

이런 곳에서 무슨 삶의 맛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참으로 공화국과 남조선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선대 수령님께서 좌우명으로도 간직하신 인민위천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며 그들의 레일과 행복을 국정의 제일과제라는 맛있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래서 공화국의 인민들은 마음이 비단결같이 곱고 순결하며 가장 멋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신기한 통고장

도 나타나지 않았다. 헛물만 던진 어리석은 적들은 나름대로 《공산군도 류다오거우만은 치지 못한다.》, 《스열다오거우(12도주)나 자짜이수이(가재수)를 치고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로 불바머져 없어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이구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재중동포 허국철

로 불바머져 없어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이구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재중동포 허국철

로 불바머져 없어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이구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재중동포 허국철

로 불바머져 없어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이구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재중동포 허국철

로 불바머져 없어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이구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재중동포 허국철

로 불바머져 없어 주변은 온통 암흑천지였다.

(정말로 우리 장군님께서 의도하신 그대로이구나!)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다시 한번 속으로 탄성을 울리며 전투는 다 먹어놓은 먹이라 고 깨고소해하였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주석의 지휘에 따라 습격대가 먼저 산을 내려 순식간에 도성을 넘었다.

뒤이어 성문이 활짝 열리고 전대대가 일시에 성안으로 유박해들어갔다. 뒤늦게야 적들을 차란 적들이 병영에서 뛰쳐나와 대응을 시도했으나 이미 그곳을 겨누고 있던 기관총화력에 총 한방이면 허허리미 못하고 너부러졌다. 삼시에 포대들과 병영, 경찰서는 빨치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재중동포 허국철

천하무뢰한 리명박역적패당을 영원히 매장해버리자

쥐명박징벌은 조국통일의 요구

지금 쥐명박당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증상모독한 역적의 무리들을 단숨에 축탕처벌할 공화국 천만 군민의 멸적의 의지앞에서 《도를 넘은 지나친 비난》이니, 《강한 유감》이니, 《중단 촉구》니 뭐니 하며 아부재기를 치고있다.

이것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대죄를 지은자들의 어리석은 구차한 너두리에 불과하다.

우리 겨레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리명박쥐새끼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

쥐명박징벌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요구이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민족자주권을 실현하지 않고서는 조국통일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민족과 발전자체도 보장할수 없다.

그런데 사대와 외세존을 제정화한 리명박역적패당은 지금껏 《외세우선》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외세에 섬겨바치고 외세의 반공화국사통과 침략책동에 적극 추종해왔다. 이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미국상전에

아부하여 《남북대화가 없는 한 조미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성급한 조미 접촉은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 《니 뭐니 하고 양말을 부리는가 하면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놓고서도 그 무슨 《유엔결의위반》과 《공동대응》을 떠들어댔다.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의 돌격대로 발발하고 나서의것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머리우에 핵화물을 들씌우려는 미국의 전쟁머슴군이 되어 광란적인 북침전쟁불장난소동으로 외세에게 동족을 침략할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던 것이 바로 쓸개빠진 리명박역적패거리들이다.

쥐명박역적패당은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다. 북남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은 북에 대해 《함께 살아가자 동족으로만 생각해서 안된다》, 《대결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고 지껄여대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동족에 대한 《주적》나발을 공공연히 불어대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 같은것을 발간배포하고 반공화국만화책을 어린이들에게까지 강압적으로 내돌렸다. 그런 가하면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의체제의 통일》을 떠들어대며 그 무슨 《급변사태》니, 《통일세》니 하며 《흡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이 쥐새끼무리들은 북에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 《천추의 한》이니, 《울화통이 터진다》느니 하는 광기를 부리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이 천하무뢰한 무리들은 민족의 대극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모자라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증상모독하는 특대형범죄도 저지르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이제 민족앞에 저지른 저들의 만고대죄의 대가를 독독히 치르게 될것이다.

김형권

는 고사하고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각마저 상실한 천하역적의 무리라하는것을 독독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을 배반하고 외세에 아부하는 더러운 역적패당, 무모한 호전파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의 악화를 면할수 없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대해 꿈조차 꿀수 없으며 온 겨레가 전쟁의 참화밖에 입을것이 없다.

지금 역적패당이 동족에 대한 악랄한 비방증상을 일삼으며 북침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그것은 공화국의 선군위력앞에 기가 질리고 반민족적책동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버림을 받아 릉중에 처한 반역무리의 발악적인 몰부림에 불과하다.

쥐명박역적패당은 이제 민족앞에 저지른 저들의 만고대죄의 대가를 독독히 치르게 될것이다.

보수매문지들은 준엄한 징벌을 면할수 없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리복순과 나눈 대담

기자: 오늘 북남관계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해있다. 이렇게 된다는 리명박 《정권》과 함께 그에 추종하여 반북대결모략사동을 악랄하게 벌리는 보수매문지들에게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리복순: 공정성과 객관성은 언론활동의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매문지들이 지난 기간 언론활동의 이 원칙들을 저버린채 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분위기를 고취시키고 민족의 통일지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저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리명박대결 《정권》이 들어선 이래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매문지들이 떠벌이는 《선행포기》니, 《원칙고수》니, 그 무슨 《관망대기 3대조건》이니 뭐니 하는마귀의 반동일제변명을 비호두둔하고 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이 마치 《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해왔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공화국의 정



당한 자위적조치들을 시비중상하였는가 하면 북남관계선을 위한 공화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그 무슨 《경제사정》 때문인듯이 묘사하면서 《북의 주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주장으로 당국의 동족대결정책에 맞장구를 쳤다.

지난해 12월 청천벽력같은 대극상앞에 온 민족과 세계가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도 남조선보수매문지들은 보수매당의 대역죄를 비호두둔하였는가 하면 지어 《테일리NK》와 같은 극우보수매문지들은 《조선의식당에서 흘러나는 눈물》은 강요된 슬픔이 아니라 《30개월이 뭐니 하며 공화국인민들의 고결한 피눈물을 모독하였다. 심지어 《추도행사시 울지 않는 주인들은 수용소에 보내졌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눈여겨 가짜까지 않고 지어내어 류포시공민들의 망동이나야말로 절정은 물론 조선민족의 피라고는 뉘우침도 없는 패륜백악당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지난 4월에 진행된 공화국의 태양절정축행사를 놓고 보수매문지들이 벌린 추태국적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남조선인민들뿐이다. 지금까진 리명박역적패당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을 떠들면서 《30개월이만의 빼는 소고기만 수입한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역적무리들은 남조선시장을 위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소갈비, 내장 등을 마구 팔아대고있다. 이로 인해 남조선인민들은 언제 미친남에 걸릴지 모두가 불안에 떨고있다.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상업인 미국의 이익만 보장하면 된다는 쓸개빠진 매국노인 리명박역적이 살아숨쉬는 한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은 언제가도 가시어질수 없다. 민족적의식이라고는 뉘우침도 없는 천하에 둘도 없는 민족반역자, 인간쓰레기 리명박역적을 하루빨리 심판대에 매달아야 남조선인민들이 편하게 살수 있다.

지금까지 감행해온 매문행위의 최정점으로 온 겨레의 심장을 증오와 복수의 일념으로 뒤흔어놓았다.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의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직후부터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보수매문지들은 공화국의 존엄은 영상이든가라도 남조선에 광고하면서 무엄하게 늘어났고 태양절 100축행 행사를 두고 《잔치비용》이 얼마니 뭐니 하며 불손하게 늘어났다. 지어 보수매문지들은 이번 태양절을 계기로 만수대덕에 정중히 모신 절세유인들의 동상까지 돈으로 저울질하는것과 같은 일에는 차마 올리기조차 험한 말로 지면을 어지럽혔다.

겨레의 아픈 가슴에 칼질도 서슴지 않자 못해 동족의 경사를 악의에 차서 험하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증상모독한 남조선보수매문지들의 망동이나야말로 절대로 용서받할수 없는 만고대죄이다.

기자: 남조선보수매문지의 이와 같은 망동은 리명박역적당의 직접적인 부추김과 지휘조종됨에 감행되고 있지는가.

리복순: 그렇다. 남조선에는 지금 공정한 언론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고 거의 모든 언론수단들이 세계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진

실과 민의를 괴롭히게 되곡하고있다. 특히 북남관계와 통일문제에서 《정권》의 지시를 되받아넘기는 《앵무새》로, 어증이며증인들이 날조한 모략자료들까지 외위대며 반북대결을 선동하는 돌격대로까지 전락되었다.

이러한 남조선의 언론실태는 바로 리명박역적당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언론장악책동의 결과이다. 리명박은 집권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라는것을 《대통령》직속기구로 만드는 놀음부터 벌렸으며 그 우두머리로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불리우는 최시중을 들어앉혔다. 또 《KBS》와 《MBC》, 《YTN》을 비롯한 주요언론사 사장들도 자기의 심복들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진실성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졌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권력의 시너, 어용나팔수에 불과한 보수매문지들은 저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만고대죄에 대한 공화국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심판이 어떤것인가를 뼈저리게 감수하게 될것이다.

후회한 언젠나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다.

뒤늦고있는것은 바로 언론탄압과 어용화책동으로 사회를 언론해해지대, 민주주의 무덤으로 전락시킨 리명박패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기자: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앞장에서 날뛰는 남조선극우보수매문지들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리복순: 언론의 시대적사명을 해버리고 허위와 날조, 역측과 추측으로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인륜적행위를 비호하고 그에 동조하고있는 남조선의 보수매문지들은 마땅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참용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 군대는 이미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행위로 퇴고되는 이상 그 모든것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졌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권력의 시너, 어용나팔수에 불과한 보수매문지들은 저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만고대죄에 대한 공화국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심판이 어떤것인가를 뼈저리게 감수하게 될것이다.

《각하》, 빨리 들어가소

— 남북의 민심을 담아 —

리송일

와들와들 왜 그리 떠나요 MB 《각하》 평양의 《잔치비용》 얼마요 북침역 정밀타격할수 있다... 위상통에 짹짹 춘향이앞에 변화도걸더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듣자부터 태지적성에 처먹지도 못하며 와들 와들

암행어사소식 들은 변화도처럼 문소리, 바람소리에도 와들와들

너무 떨지 말아요, MB 《각하》 법 본 눈처럼 와들와들 이런 날 울줄 알고 미리 마련했으니 여기 들어가소 특수강으로 만든 판이우다

얼마전 미국에서 사람들의 생명에 해를 주는 미친소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산 소고기가 자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당장 중지할 대신 그 무슨 《검역강화》만을 외위대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친미사대가 체질화된 역적패당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반인민적죄악이 아닐수 없다.

원래 리명박보수매당은 2008년에 소고기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드세찬 촛불투쟁에 질겁하여 미국에서 미친소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미친소병에 걸

관주경 단고 용접까지 해지우면 절대 떨리지 않소리다 취박이 찢어죽이라는 북녘노성 안들리니 《대통령》 병거지 쓰고 해먹은 사기협잡 죄로 변화도처럼 개죽음 당할 녀려도 없으니

오죽이나 좋으리까 계속 짹짹거리고 그 소리 밖으로 안새니 《각하》 좋아, 세상이 조용해서 좋아 실컷 지껄이다 씹어저도 그 역신내 산천에 풍기지 않겠으니 얼씨구 좋아

어서 들어가소, 와들와들 떨지 말고 조선인민군 특별작전행동 정말 개시되기 전에 MB 《각하》, 빨리 들어가소 세상오를 매장할 이 특수강 관속으로 공포에 질린 떨지저들 다 데리고...

인민들의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린 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갖은 구실을 대며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

문제는 리명박역적이 성년민심이 두려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하자고 해도 그렇게 할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는것이다.

그것은 리명박역적패당이 미국과 체결한 굴욕적인 《소고기수입협정》 때문이다. 이 《협정》 제5조에 의하면 미국에서 미친소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발원인원을 해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단결정을 내려야만 남조선당국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중

지하게 되어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손락에서 놓이고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국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남조선당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수 없게 되어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도 미국에서 미친소병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할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 위협성을 남조선당국이 증명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수도, 통제도 할수 없는 남조선당국이 그것을 증명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산 소고기수입중단을 요구하는 국제목소리가 날로 커지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이라는것을 미국에 파견하여 《조사》놀음을 벌리게 하고있다. 그런데 《조사단》에는 정작 미친소병을 확인할수 있는 수의전문가가 없다는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애당초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한갖 미국에 가서 《조사》를 벌렸다는 기념새나 피우자는것이다. 실제 로 《조사단》이라는것은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가보지도 못하였다. 일개 미국의 농장주의 거부로 현지에 못가는 《조사단》이 조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결국 리명박 《정권》이 떠드는 그 무슨 《조사》놀음도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기만하려는 유지한 놀음이라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리명박역적패당의 사대매

본시기자 한강성



진짜전쟁맛을 보려는 사람들의 경멸

리명박당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련합공중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7일부터 18일까지 《F-15K》, 《F-16》 등 각종 전투기들의 참가에 감행되는 공중연습에는 항공차단, 공중타격, 공중공유 등 각종 훈련들이 진행되고있다.

리명박당당은 이번 훈련이 그 누구의 《도발원인》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데 초점을 맞춘것으로써 《유사시》 즉각 출동태세를 집중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떠들고 있다.

리명박당당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은 가득이나 참예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극단으로 몰아가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집권초기부터 《선제타격》폭언을 쉼쳐온 역적패당은 외세와의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그 실행을 위한 작전적도발을 구축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난해 6월부터 동족을 자극하는 특대형도발소동을 고의적으로 벌리면서 그것을 계단식

으로 확대해왔다. 그것은 정세를 극한점으로 몰아가 군사적충돌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쉽사리 전면전쟁으로 이어놓으려는 리명박역적패당의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최근에도 리명박패당이 공화국의 핵, 미사일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선제타격》계획을 세우고 《병커 버스터》 GBU-28을 실전배치하고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역적패당이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쟁계획을 작성한 상태에서 거듭 벌어지고있는 전쟁연습소동은 그들이 이미 예견한 북침작전안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리명박이 《선제타격》으로 동족에게 일단 선전포고한 이상 공화국은 이 기회에 역적무리들에게 미국의 《핵우산》으로도 막지 못하는 정의의 불벼락으로 진짜전쟁의 맛을 보여줄것이다.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몰던병술담병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은 그때 가서 죽어너부러져 변변히 후회도 하지 못하게 될것이다.

본시기자 주광일

남조선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인 《탈남자》들의 비참상을 고발한다

조 국 통 일 연 구 원 백 서

최근 남조선과 해외에서 《탈남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탈남자》란 남조선에서 더는 살수 없어 정든 재고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떠돌아다니면서 숨어살다살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남조선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인 《탈남자》들의 비참상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낸다.

남조선언론들은 현재 최저생계비도 못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1 000만명의 빈민층도 잠재적인 《탈남자》이지만 군사분계선과 세면이 바다로 막혀 탈출하지 못하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해외로 나간 이민자들도 사실상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면서 탈출한 《탈남자》들이다.

1960년대에 박정희군사파쇼 《정권》은 《제한된 경로와 인구의 급격한 팽창》이니, 《자원부족》이니, 《실업자구제》니 하는 구실로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남조선주민들을 외국의 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에게 팔아먹었다.

1962년부터 2007년까지 40여년간 망명, 이민, 국제결혼, 류학 등의 명목으로 남조선을 등지고 해외로 떠나간 이민자수는 무려 300만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누구라할것없이 《먹고 살기 힘들다.》, 《지옥같다.》, 《사람사는 곳 같지 않다.》,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하면서 필사적으로 남조선을 탈출한 사실상의 《탈남자》들이다.

민, 회사원,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 등 모든 계층의 남너로소가 다 망라되어있다.

이민의 종류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취업이민》, 자식교육, 장기치료, 관광을 구실로 한 《교육이민》, 《병치료이민》, 《관광이민》, 인생살년이 라도 편안히 살기 위한 《은퇴이민》, 해외에서의 기업을 구실로 한 《기업이민》 등 천대만상이다.

남조선언론들은 《탈남자란 살기 어려워 공식적인 이민절차를 밟지 않고 남한을 떠난 불법체류자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는 한 국이 싫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의 탈남자이다.》, 《불안하고 우울한 한국의 현실이 이민열기를 가속화시키고있다.》, 《계속되는 로사분규, 경기침체, 정치불안,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교육조건때문에 거액을 주고서라도 한국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죽들도 수다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는 한 너성의 경우 남조선에서 살고있던 아들부부가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사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 해 미국에 7년동안 체류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었지만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몰리워 생리비를 당한채 추방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겨레》 2010. 4. 4)

《미주한인회총련합회》 사무국장은 《서류미비자(탈남자)가 종종 일부가 추방당해 가족재결합을 위해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많은 어린이가 구급과 추방으로 부모를 잃고있다. 그들은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있다.》고 개탄하였다. (《한겨레》 2010. 4. 5)

추방으로 남조선에 불붙여온 《탈남자》들을 기다린것은 더한 박해와 죽음뿐이다. 하기에 《탈남자》들은 끌려오자마자 《추방자에게 한국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땅이었다.》, 《불법체류자신분이라도 이국이 훨씬 편하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정말 끔찍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남조선을 필사적으로 탈출하고있다.

다행히 《불법체류자》로 붙잡히지 않고 숨어지내는 《탈남자》들의 경우에도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남조선이민의 27%인 18만 7 000여명이 빈민층으로 전락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있다. 하여 미국인들로 부터 《몰려다니면서 파먹는 쥐 떼》, 《세계1위의 사기군》으로 천신과 조롱을 받고있다.

중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로출될가봐 대낮에는 쪽방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먹을것을 구하려 다니며 자식들은 아예 짐짓 숨겨둔 집안에 가두어놓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애들란타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탈남자》녀성들이 미용사나 손돌팔이사라는 이름으로 고용되어 한평 닳긴한 공간에서 매일같이 수십명의 호객원들을 상대하면서 몸을 팔고있다. (《조선일보》 2009. 3. 14)

고용주들은 《탈남자》녀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잔뜩 빗을 치며놓고 외출도 시키지 않고 있으며 감옥같은 방에 가두어놓고 하루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고있다.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이후에도 미국 동부지역에서만도 200여명의 《탈남자》녀성들이 호색한들에게 불붙여 성노예생활을 하는 사실이 밝혀져 만사함을 경악케 하였다.

미국무성까지도 2011년 6월 공개한 연례인신매매실태보고서에 남조선은 《경제매출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도착국》, 《해외매춘여성 최대배출국》이라고 밝히는 정도였다. (《연합뉴스》 2011. 9. 17)

일본에서도 수많은 《탈남자》녀성들이 도쿄의 신주쿠, 아카사카, 긴자 등의 유흥업소와 오사카, 교베 등 지방도시들까지 나가 일본 야쿠자나 지어는 경찰에게 불붙여 매춘을 강요당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피뢰총령사관은 피뢰당국에 오스트랄리아에는 2 000여명의 《탈남자》녀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고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시사저널》 2011. 12. 20)

이에 대해 피뢰《조선일보》는 《많은 한국녀성들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오스트랄리아의 지하실, 아파트 등 간헐 공간에서 성노예생활을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2008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제 18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동이 되어 2 500여개의 《법안》이라는것을 통과시켰다.

그중에는 남조선에 들어와있는 외국인불법체류자들과 관련된 《법안》은 있어도 남의 땅에서 구도의 멸시와 교통속에 살아가는 《탈남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반면에 《새누리당》 것들의 《북인권법》이라는것을 발의시키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 것들이 제네바 유엔인권리사회에까지 물러가 《북인권》을 떠들면서 망동을 부리다가 경비원들과의 충돌로 부상당하고 밀처에 실려 쫓겨나는 망신까지 당하였다.

피뢰패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장자리에 대결광신자를 들여얹혀 반공화국인권도박기구로 전락시켰는가 하면 약명높은 반인권도박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 《인권상》을 주는 망측한 놀음도 벌였다.

리명박역도의 추태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남조선 각계가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신스러운 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북한인권위원회》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남조선에서 살수 없어 정착없이 해외로 나간 《탈남자》들이 어디에서 죽든살든 안중에도 없는 리명박패당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것은 역적패당이 떠드는 《인권》이란 위선이며 그들의 반공화국 《인권》도박소동으로 순진부실한 정치적충성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있다.

제반 사실은 반인권범죄의 주범, 왕초는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이라는것을 고발해주고있다.

오늘 피뢰패당에 의해 날로 늘어나고있는 《탈남자》 문제는 더는 방임해둘수 없는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남조선인민들과 국제사회는 《탈남자》 문제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리명박패당의 반인권적, 반인륜적범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주제101(2012)년 5월 10일 평 양

1 남조선에서 《탈남자》라는 말은 8.15해방직후와 1950년대에 파쇼독재, 기아 등으로 남조선에서 살기 힘들게 된 사람들을 몰래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생겨났다.

리승만 《정권》 초기에 한해에 수백수천명씩 떠던 《탈남자》는 박정희군사파쇼독재 18년기간에 26만 2 000명에 이르렀으며 전두환, 로태우군사독재시기에 46만 6 000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남조선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한 《탈남자》 수는 무려 50만명 이상에 달하고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 30만명, 일본에 8만명, 필리핀에 2만 5 000명, 캐나다에 1만명, 영국에 5 000명, 오스트랄리아에 1 800명의 《탈남자》들이 있다. (《자주민보》 2010. 12. 24)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탈남자》들에 한한 숫자일뿐 알려지지 않은 《탈남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실로 엄청나다.

이들중에는 돈벌이, 관광 등의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가 남조선에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 남아 숨어사는 사람도 있고 거간꾼들에게 돈을 쥘러주고 비행기나 배의 집안에 숨어 몰래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도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배우자, 보호자로 가장하여 남조선을 탈출하는 수법이 류행되고있으며 이러한 《탈남자》들이 너무 많아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탈남자》들의 탈출을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거간꾼들까지 생겨나고있다.

캐나다국경지역에서만도 수많은 거간꾼들이 《탈남자》를 넘겨주고 1인당 5 000~7 000US\$의 돈을 받아먹고있다. (《시사저널》 2008. 2. 12)

리명박역도가 집권한 이후에도 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민생고에 견디지 못하여 남조선을 떠나가는 이민행렬이 줄을 잇고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남조선에서는 한해에 8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민으로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지난해말에는 그 수가 무려 32만여명에 이르렀다.

피뢰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말 현재 해외에서 떠돌아다니는 남조선 이민자수가 175개 나라에 무려 94만여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중 미국에 70만 846명, 캐나다에 10만 4 930명, 오스트랄리아에 2만 561명, 뉴질랜드에 1만 6 561명, 라틴아메리카에 5만 6 471명, 유럽에 3만 3 564명, 아시아 등지에 7 442명이 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해외이주통계》 2012. 2. 1)

2011년 9월 남조선의 이주노동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조선주민의 46.6%가 《이민을 생각해보는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실제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를 답사한 사람들은 연평균 2만 400만 명에 달하였다. (《연합뉴스》 2011. 12. 19)

이민자의 대렬에는 로동자, 농

2 남조선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한 《탈남자》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다.

《탈남자》들은 친신만고끝에 해외로 탈출하였지만 그들은 해당 나라들의 극심한 인종차별정책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 가고있다.

미국에서는 《탈남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발각되는 경우 수용소나 감옥에 갇혀 수감기 채워진채로 구라와 성폭행을 당하는 등 짐승취급을 당하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징역처럼 실려 추방되기 일쑤이다.

이렇게 추방되는 《탈남자》는 미국에서만도 헤마다 수천명이며 이들은 심한 우울증과 환각상도에 빠져들거나 감옥에서 소도판들의 학대행위에 견딜수 없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몇몇건 미국 캘리포니아주 런방구치소에서 남조선의 한 《탈남자》가 추방을 앞두고 자살한 사실이 알려져 만사함을 격분시켰다.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는 과정에는 혈육간에 생리별하는 가

다행히 《불법체류자》로 붙잡히지 않고 숨어지내는 《탈남자》들의 경우에도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미국에서는 남조선이민의 27%인 18만 7 000여명이 빈민층으로 전락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있다. 하여 미국인들로 부터 《몰려다니면서 파먹는 쥐 떼》, 《세계1위의 사기군》으로 천신과 조롱을 받고있다.

중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이 로출될가봐 대낮에는 쪽방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먹을것을 구하려 다니며 자식들은 아예 짐짓 숨겨둔 집안에 가두어놓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애들란타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탈남자》녀성들이 미용사나 손돌팔이사라는 이름으로 고용되어 한평 닳긴한 공간에서 매일같이 수십명의 호객원들을 상대하면서 몸을 팔고있다. (《조선일보》 2009. 3. 14)

고용주들은 《탈남자》녀성들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잔뜩 빗을 치며놓고 외출도 시키지 않고 있으며 감옥같은 방에 가두어놓고 하루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고있다.

《외국에 대한 공포》를 안고 해외로 나왔지만 살아갈 집과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소박한 꿈이 깨진 《탈남자》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타락하여 폭행, 사기, 절도, 마약람용, 살인 등 각종 범죄행위에 가담하고있다.

2006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탈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4 457건에 달한다. (《연합뉴스》 2011. 8. 7)

그중 2007년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에서 피뢰패당에게 걸린 《탈남자》 청년이 수십명의 대학생들을 사살한 사건, 2008년 미국에서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 한 《탈남자》가 고급승용차를 무더기로 도적질하여 남조선에 되팔아먹은 사건도 있다. (《뉴스시》 2009. 10. 25)

현재 미국, 일본 등 외국에 숨겨져있는 《탈남자》들은 1 267명에 이르르고있으며 미국의 감옥에 있는 《탈남자》만도 200여 명이나 된다.

남조선언론들은 세계가 남조선의 《탈남자》 문제가 얼마나 심

각한 문제인지 모르고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해결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보도하고있다.

3 《탈남자》 문제는 남조선괴뢰패당의 반인민적악정의 산물이다.

특히 리명박역도는 경제와 민생파국, 파쇼독재로 《탈남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을뿐 아니라 술한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저들의 《탈남자》 문제에 한번도 관심을 돌려본적이 없다.

역도들은 미국을 행각하여 남조선의 소고기시장을 미국산것들에 쉽게바치고 아프가니스탄재파병을 약속하며 굴욕적인 남조선 미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 나가 일본 야쿠자나 지어는 경찰에게 불붙여 매춘을 강요당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오스트랄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피뢰총령사관은 피뢰당국에 오스트랄리아에는 2 000여명의 《탈남자》녀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고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시사저널》 2011. 12. 20)

이에 대해 피뢰《조선일보》는 《많은 한국녀성들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오스트랄리아의 지하실, 아파트 등 간헐 공간에서 성노예생활을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 문제는 유엔무대까지 끌고가 소동을 피우면서도 《탈남자》들이 해외에서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는 돌아다보지도 않고있다.

2010년 남조선류학생이 외국에서 폭행으로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사회 각계에서 사건해결과 제방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자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있던 천정 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천영우는 《왜 외국에서 난 사건을 외교통상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망발을 늘어놓아 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반면에 2009년 남조선에 왔던 일본인관광객들이 화재로 죽은 사건의 발생하자 피뢰국무총리라는자가 일본에까지 찾아가 유가족앞에 무릎꿇고 사죄를 하고 천영우님이 일본대사에게 조의표시능음을 벌렸으며 외교통상부가 《위로문평》까지 내고 제방방지를 약속하는 추태를 부렸다.

《탈남자》들을 외면하는 바근해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이다.

자 미국은 식민지배체제의 안정적유지를 위해 쓸모없게 된 박정희를 심복을 내세워 사살하고야말았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뒤받침필에 광주학살을 감행한 권력자를 강탈했던 전두환이 6월항쟁의 불길에 타죽게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다 파먹은 김치독처럼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리명박의 운명도 달리 될수 없다. 집권 수년간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거래의 일치한 중요야 배역을 받고 더우기 최고존업우룡으로 무자비한 정벌의 판결을 받은 리명박을 이제와서 시국이 목숨을 부지해줄 리 만무하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다시 리적 최악의 집권위기에 처한 리명박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형식적으로 파견한 《조사단》마저 미국이 맹해하고 못하게 한것은 그 단죄인 표현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쓸모없게 된 리명박을 구원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구원해줄 때이다.

이런것도 모르고 미국이 자기를 살려줄것처럼 생각하며 《공동 대응》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부르짖고있는 리명박이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리명박이 바다건너 미국으로 출항을 놓아도 한계를 타르면서 내서 벗어날수 없다. 그것은 죄지은자의 달리는 필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역적패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의 인공지구위성발사비용 등을 시비질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피뢰역적패당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 등을 결코못지 미사일발사에 돈을 벌려는가 하면 몇몇이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수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우롱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이 과거 수십년 동안 제국주의무리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허허머를 줄러매며 국방건설에 힘을 넣은것도 바로 그때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

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쳐있다.

보라! 제 힘이 없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침략악에서 어떻게 녹아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있는가를.

지금 적대세력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발사를 중지하면 마치 그 어떤 핵력이 차례질것처럼 요사스럽게 떠들고있다.

지어는 위성을 남이 대신 하여 봐줄러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도 하고있다.

그런 유혹이 다른데서도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선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억만금의 돈이나 그보다 더 큰 무엇보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바꾸는 그러한 인민이 아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한

과거 치욕스러운 민족사의 교훈으로부터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약육강식의 참극과 대국들의 전쟁을 보면서 자기 힘이 있어야 하며 자기 힘만이 자기를 지키고 구원할뿐아니라 강성부흥할수 있다는 철리를 뼈저리게 새긴 우리 인민이다.

그 무슨 비용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마음을 흔들어보려는것은 어리석은자들의 망상이다.

이 세상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낭진하는 미국이 그 누구의 비용문제를 떠드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우기 미국의 전쟁정책수행의 하수인이 되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비공까지 섬겨버치고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 부정부패로 인간을 강그리 련내이고 민생을

도란에 빠뜨려 심판대에 올라있는 리명박위새기무리가 그 누구를 걸고드느냐것이야말로 가판이다.

피뢰패당과 미국것들이 그 무슨 비용이든 뭐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느냐는 우리의 선군위력에 걸맞은자들의 최후발악정망동이며 우리의 철렁같은 일심단결을 허물어려는 가소로운 수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러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역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철저히 지켜나갈것이다.

이제 세계는 위대한 선군대양의 빛발아래 무적필승의 군력과 일심단결, 새세기 산업혁명의 위용을 떨치는 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금 리명박보수 패당이 저지른 천 인공노할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인 최악으로 하여 뿔아오른 공화국 천만군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여기에 바빠맞는 리명박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어떻게 하나 살길을 찾아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으며 상전의 옷자락에 더욱 매여달리고있다.

동족에 대한 적 대감과 외세에 대한 사대굴종의 대이 뼈속까지 스며있는 리명박은 이미 집권하기 전부터 외세의와 《공조우선》을 떠들어 댔으며 집권하자바로 람으로 조공보따리를 싸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의 《보호》를 예결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곡산 미친소고기를 끌어들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히 해치고있으며 인민들의 혈세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를 해마다 증액시켜왔다. 또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소소동을 한해에도 몇차례씩 벌러놓고 화약내를 품고 싸들고 미국으로 향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령대 최대 놀음이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의 불길을 지퍼올리게 되

미국의 《보호》만으로는 안심시 안되는지 우리 민족의 백년속적 일본과의 《군사협정》까지 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리명박은 오산하고 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운명의 보호신처럼 여기며 신주수미에 맞서 하는 상전들은 제 목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것을 서슴지 않는다. 외세의 폭속에 더 깊숙이 기여들어 봐야 리명박의 처지가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남조선의 령대 독재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나라를 왜놈들에게 팔아먹은 《을사조약》들도 무색케 할 대국역적 리승만도 루기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산것들의 발바닥을 핏물어 굽서겨졌던 4.19인민봉기로 식민지파쇼통치가 크게 뒤흔들리게 되자 미국은 가차없이 그를 차버리며 종당에는 제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하와이로 쫓겨나 더러운 생을 마치고말았다.

그 대포위로 《총리》 자리에 올라앉았던 장면도 상전들이 울러보지도 못한채 군부패인 박정희에게 밀려났다.

가장 처참한 주구의 물물 보여준것은 역시 리명박이 제일 우상화하는 독재자인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웰링턴연소소동을 한해에도 몇차례씩 벌러놓고 화약내를 품고 싸들고 미국으로 향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령대 최대 놀음이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의 불길을 지퍼올리게 되

자 미국은 식민지배체제의 안정적유지를 위해 쓸모없게 된 박정희를 심복을 내세워 사살하고야말았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뒤받침필에 광주학살을 감행한 권력자를 강탈했던 전두환이 6월항쟁의 불길에 타죽게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다 파먹은 김치독처럼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리명박의 운명도 달리 될수 없다. 집권 수년간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거래의 일치한 중요야 배역을 받고 더우기 최고존업우룡으로 무자비한 정벌의 판결을 받은 리명박을 이제와서 시국이 목숨을 부지해줄 리 만무하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다시 리적 최악의 집권위기에 처한 리명박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형식적으로 파견한 《조사단》마저 미국이 맹해하고 못하게 한것은 그 단죄인 표현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쓸모없게 된 리명박을 구원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구원해줄 때이다.

이런것도 모르고 미국이 자기를 살려줄것처럼 생각하며 《공동 대응》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부르짖고있는 리명박이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리명박이 바다건너 미국으로 출항을 놓아도 한계를 타르면서 내서 벗어날수 없다. 그것은 죄지은자의 달리는 필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강화와 평화적인 우주개발 계획에 대해 시비하면서 《핵개발과 로켓개발사를 포기하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열로당도않게 혼신을 하고있는가 하면 몇몇이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수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우롱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다.

우리 인민이 과거 수십년 동안 제국주의무리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책동속에서 허허머를 줄러매며 국방건설에 힘을 넣은것도 바로 그때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

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쳐있다.

보라! 제 힘이 없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침략악에서 어떻게 녹아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있는가를.

지금 적대세력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발사를 중지하면 마치 그 어떤 핵력이 차례질것처럼 요사스럽게 떠들고있다.

지어는 위성을 남이 대신 하여 봐줄러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도 하고있다.

그런 유혹이 다른데서도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선 절대로 통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억만금의 돈이나 그보다 더 큰 무엇보다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바꾸는 그러한 인민이 아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한

과거 치욕스러운 민족사의 교훈으로부터 그리고 세계도처에서 벌어지고있는 약육강식의 참극과 대국들의 전쟁을 보면서 자기 힘이 있어야 하며 자기 힘만이 자기를 지키고 구원할뿐아니라 강성부흥할수 있다는 철리를 뼈저리게 새긴 우리 인민이다.

그 무슨 비용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마음을 흔들어보려는것은 어리석은자들의 망상이다.

이 세상에서 군사비를 가장 많이 낭진하는 미국이 그 누구의 비용문제를 떠드는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우기 미국의 전쟁정책수행의 하수인이 되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 비공까지 섬겨버치고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 부정부패로 인간을 강그리 련내이고 민생을

도란에 빠뜨려 심판대에 올라있는 리명박위새기무리가 그 누구를 걸고드느냐것이야말로 가판이다.

피뢰패당과 미국것들이 그 무슨 비용이든 뭐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느냐는 우리의 선군위력에 걸맞은자들의 최후발악정망동이며 우리의 철렁같은 일심단결을 허물어려는 가소로운 수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러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역제력을 비롯한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철저히 지켜나갈것이다.

이제 세계는 위대한 선군대양의 빛발아래 무적필승의 군력과 일심단결, 새세기 산업혁명의 위용을 떨치는 강성국가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끝없는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인민을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금 리명박보수 패당이 저지른 천 인공노할 반민족적이며 반인륜적인 최악으로 하여 뿔아오른 공화국 천만군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여기에 바빠맞는 리명박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어떻게 하나 살길을 찾아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으며 상전의 옷자락에 더욱 매여달리고있다.

동족에 대한 적 대감과 외세에 대한 사대굴종의 대이 뼈속까지 스며있는 리명박은 이미 집권하기 전부터 외세의와 《공조우선》을 떠들어 댔으며 집권하자바로 람으로 조공보따리를 싸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들의 《보호》를 예결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곡산 미친소고기를 끌어들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히 해치고있으며 인민들의 혈세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를 해마다 증액시켜왔다. 또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소소동을 한해에도 몇차례씩 벌러놓고 화약내를 품고 싸들고 미국으로 향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령대 최대 놀음이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의 불길을 지퍼올리게 되

미국의 《보호》만으로는 안심시 안되는지 우리 민족의 백년속적 일본과의 《군사협정》까지 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리명박은 오산하고 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운명의 보호신처럼 여기며 신주수미에 맞서 하는 상전들은 제 목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것을 서슴지 않는다. 외세의 폭속에 더 깊숙이 기여들어 봐야 리명박의 처지가 달라질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은 남조선의 령대 독재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나라를 왜놈들에게 팔아먹은 《을사조약》들도 무색케 할 대국역적 리승만도 루기에 어울리지 않게 미국산것들의 발바닥을 핏물어 굽서겨졌던 4.19인민봉기로 식민지파쇼통치가 크게 뒤흔들리게 되자 미국은 가차없이 그를 차버리며 종당에는 제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하와이로 쫓겨나 더러운 생을 마치고말았다.

그 대포위로 《총리》 자리에 올라앉았던 장면도 상전들이 울러보지도 못한채 군부패인 박정희에게 밀려났다.

가장 처참한 주구의 물물 보여준것은 역시 리명박이 제일 우상화하는 독재자인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웰링턴연소소동을 한해에도 몇차례씩 벌러놓고 화약내를 품고 싸들고 미국으로 향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령대 최대 놀음이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의 불길을 지퍼올리게 되

자 미국은 식민지배체제의 안정적유지를 위해 쓸모없게 된 박정희를 심복을 내세워 사살하고야말았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뒤받침필에 광주학살을 감행한 권력자를 강탈했던 전두환이 6월항쟁의 불길에 타죽게 되었을 때에도 미국은 다 파먹은 김치독처럼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지금 리명박의 운명도 달리 될수 없다. 집권 수년간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과 거래의 일치한 중요야 배역을 받고 더우기 최고존업우룡으로 무자비한 정벌의 판결을 받은 리명박을 이제와서 시국이 목숨을 부지해줄 리 만무하다. 미국산 소고기 문제가 다시 리적 최악의 집권위기에 처한 리명박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 형식적으로 파견한 《조사단》마저 미국이 맹해하고 못하게 한것은 그 단죄인 표현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쓸모없게 된 리명박을 구원해주려고 하지 않으며 구원해줄 때이다.

이런것도 모르고 미국이 자기를 살려줄것처럼 생각하며 《공동 대응》이니, 《강력한 대응》이니 하고 부르짖고있는 리명박이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리명박이 바다건너 미국으로 출항을 놓아도 한계를 타르면서 내서 벗어날수 없다. 그것은 죄지은자의 달리는 필수 없는 비참한 운명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지금 리명박위새기무리들은 《북의 핵과 미사일개발》이 어찌고저쩌고 하면서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고있다. 리명박역도가 직접 나서서 북이 장거리미사일발사에도 돈도 얼마 썼을것이고 그 돈이던 강병이 얼마를 사줄수 있었을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헤쳐 댔는가 하면 그 수급줄게들도 나서서 어처구니없는 수작질을 해대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피팍을 바쳐 오늘의 막강한 국방력을 건설한데 대해 자부와 긍지에 넘

이것은 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흐려놓고 수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자들, 세상만사를 금전으로만 저울질하는자들의 어리석은 망발이다.

얼마전 전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을 맞으며 평양의 인민극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고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식솔》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아버지를 모시고 듣가는 화려한 문화예술 전당에서 명성이 자자한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하는 행운

인민극장에서 울린 인민의 노래

을 지닌 관람자들은 말할것 없고 TV화면으로 공연을 본 내외의 반향은 대단했다. 공연의 사상예술적수준도 경탄을 자아냈지만 음악회에서 받아들안은 걱정의 파도는 그에 비할바없이 컸다.

너도나도 무대에 올라

《출연배우가 따로 없는 공연》,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한 사람들은 공연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했다.

그런데도 했다. 뜻깊은 음악회에서 세 세대를 창조하는 근로자들의 힘찬 기상이 노래치는 흥성6중창과 합창 《승리의 5월》, 남성2중창 《류벌공의 이영에 끝이 없으리》, 혼성6중창 《처녀의 노래》, 합창 《일터의 휴식》, 트럼베트와 색소폰중주 《도시처럼 시집와요》, 혼성4중창과 합창 《더 높이 더 빨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로 한창 고조를 이루는 가운데 객석에 앉아있는 관람자들도 무대에 초청되었던 것이다.

그처럼 황홀한 인민극장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기쁨에 넘쳐 얼굴에 함박웃음을 담고 제일먼저 무대로 나온 《배우》들은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협동농장의 한 영빈과 평성합성가죽공장 로동자 김영숙이었다.

지난 시기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에 여러차례 입선한 자랑을 안고있는 이들은 전문성악가수 못지 않는 예술적기량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독창 《뿌리처럼 가세》, 《종다리》를 흥취나게 불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특히 일흔살을 앞둔 한영빈로인이 그 나이에 내는 소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맑고 창창한 목소리로 구성지게 민요가락을 뽑아낼때마다 관중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이들에 뒤질세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당비서 김영숙이 무대에 올라 은하수 독창가수와 함께 노래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를 멋들어지게 불러냈던것이 그 하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대학생들도 최첨단과학을 점령해가는 청년의 패기와 열정에 넘쳐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을》을 씩씩하게 불러 음악회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에 출연하였던 영화예술인들도 무대로 나와 영화장면들을 재현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나오는 노래들인 《구국투쟁가》와 《생이란 무엇인가》를 감동깊게 불러 관중들을 영화의 극중세계로 이끌어가기도 했다.

무대에 오른것은 비단 노래만이 아니었다. 인기있는 만담명수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만수대에술단의 공훈배우 리순홍이 무대에서 영화배우 유원준의 특색있는 목소리와 장난세한 꼬마목소리를 방불하게 흉내내

의문화의 창조자, 진정함 향유자로 부키영화를 누려가는 리며 배를 그려줬었다.

보이지 않는 주석관, 보이는것은...

뜻깊은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을 TV화면과 신문에서 비오며 사람들은 숭엄한 격정에 휩싸였다. 공연을 관람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앞에 주석관이 없었던것이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관람자들이 앉는 보통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음악회를 관람하시었다.

당, 무력기관, 근로단체의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인것이다.

일군들, 인민경제 주요부문 공장, 기업소, 농장의 근로자들, 과학교육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 대학생들이 경애하는 그이의 좌우와 앞뒤에 오붓하게 모여앉아 행복속에 공연을 보았다.

친어버리와 자식들이 무뎠없이 어울린 한식솔의 모습이였다. 긴장감이나 어려움은 도저히 찾아볼수 없었다. 평범한 인민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어울려 공연을 관람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 한없이 숭고한 그 모습에는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아들여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모두를 자신의 전우라고 뜨겁게 불러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오늘에는 또 평범한 근로자들과 한식솔이 되신것이다. 상하관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사상과 뜻, 순결한 정과 의리로 뭉치고 피와 살도 아낌없이 나누는 전우, 한피줄을 나누는 혈육들사이에는 그 어떤 사소한 간격도 없었다.

고 그이의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으며 그이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것이 판데로 되고있는 이것만으로도 많은것을 느낄수 있다. 혼연일체란 바로 이런것이지 아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전우로, 하나의 대가정으로 혼연일체를 이룬 천만근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참으로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식솔》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영원한 한식솔이 되어 선군조국의 창창한 태양을 앞당겨가는 군대와 인민의 모습을 온 세상에 힘있게 보여준 의의깊은 공연무대였다.

장명화



120여년전 로동자가 만일 오늘을 본다면...

미국의 시카고로동자들이 8시간로동제의 실시를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벌인 때로부터 120년, 그들의 투쟁이 벌여진 날을 기념하여 5월 1일이 국제적인 명절로 제정되기도 12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 기간 자본의 철퇴를 마스고 로동의 참된 권리와 행복을 찾기 위한 전세계근로

자들의 피어린 투쟁은 나라와 인종, 민족을 뛰어넘어 그 어디에서나 줄기차게 벌어져왔다. 올해에 조선반도에서도 근로자들이 5.1절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북과 남에 펼쳐진 현실은 판이하였다. 만일 120여년전 로동자들이 오늘의 북과 남의 두 현실을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자들과 함께 명절을 쇠는것이 아니다. 그이께서는 이날 대만 유리공장과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여 국제적명절을 맞는 로동계급을 축하해주셨었다. 산간벽촌에 자리잡은 기계공장에 종합적인 봉사전물로 훌륭히 꾸려진 강성민에서 미용사, 리프사, 사진사, 목욕탕관리원, 수영보급원 등 평범한 구성근로자들이 경애하는 그이를 모시고 한가정처럼 웃는 5.1절날의 기념사진은 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궁지높은가를 가슴후뼀에 전해주었다.

을 심판하기 위한 8월총파업을 벌일것을 결의하였다. 민주로총 부산본부장 윤택근은 《이 《정권》은 쌍룡차로 노동자들이 22명이나 죽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내며 99%의 회생을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16개 지역에서 8월총파업을 선포한다. 이 야만의 《정권》을 끝장내는데 민주로총이 반드시 주역이 되겠다.》고 결의하였다.

은통 명절분위기, 성대한 음악회와 국가연회

5.1절을 맞이한 공화국은 은통 명절분위기로 흥성이였다. 이날을 맞으며 평양시와 각 도, 시, 군의 경리들은 《전세계근로자들의 국제적명절 5.1절 만세!》 등의 구호와 결합들, 공화국기들로 단장되었다.

각지의 공연, 유행시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은 다채로운 예술공연과 무도회,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을 하면서 명절을 즐겁게 쇠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흥성거렸다. 유서깊은 평양의 정치풍은 모란봉과 대성산유원지에서는 5.1절을 쇠러온 근로자들의 인파로 물결쳤다. 회천과 평양, 북창의 전력생산자들과 강선과 성강, 김책, 황철의 강철생산자들, 안주지구의 탄부들은 기업소별로 바를당기기, 발복매고달리기 등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을 하며 명절분위기를 돋구었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과수생산지에서 비현, 룡천, 함주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민족적정당에 맞추어 흥취나는 농악무를 펼쳤다. 지식인들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눈이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일념밑에 5.1절을 뜻깊게 보내었다.

근로자의 세상인 공화국에서는 5.1절을 국가적명절로 쇠는것이 전통으로 되고 있다.

이날을 맞으며 삼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국가적 기념일에만 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각지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지식인들과 함께 5.1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었다. 저녁에는 모란봉과 인민문화공전에서 5.1절경축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연회참가자들은 평범한 근로자자리를 차지하는 나라를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격정을 토로하였다.

5.1절의 절정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근로

이날 평양의 인민극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모시고 5.1절경축 은하수음악회가 진행되었다. 하루종일 근로자들과 함께 명절을 쇠는 경애하는 그이를 어머니로 모신 궁지와 자랑으로 하여 음악회는 시종 감격과 흥분, 격정으로 고조되었다.

은하수음악회를 TV로 시청한 한 해외동포는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근로자들도 많지만 그국에서처럼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떠받들리려는 곳은 없다고 하면서 서정느낌으로 감지 못해 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시위행진

남조선에서는 5.1절을 맞으며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을 되찾기 위한 각종 집회와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13개 지역에서는 민주로총의 주최하에 대규모집회와 행진, 기념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서울에서는 1만여명의 로동자들이 모여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중단!》, 《로동법 전면개정》 등의 구호를 내걸고 서울역앞에서부터 서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진행하였다. 행진에는 로조민체와 통합진보당, 각종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도 참가하여 연대투쟁의 도수를 높였다.

부산지역에서는 민주로총을 비롯한 투쟁단체들이 모여 5.1절을 기념하는 로동자대회를 열고 취명박 《정권》

통합진보당에서는 민주로총의 《6월경고총파업과 8월 무기한총파업》을 지지하면서 《전체 로동자들과 굳게 연대해 로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비정규직철폐, 정리해고철폐, 최저임금현실화, 로동법전면개정 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립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서울에서는 남조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국산 소고기검역 및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날이 저문 남조선의 5.1절이다. 만일 120여년전의 로동자들이 오늘의 북과 남의 두 현실을 본다면 이렇게 평가할것이다.



5.1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는 공화국의 로동자들(←)과 비정규직철폐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

실리가 큰 원격고려의료봉사체계

원격고려의료봉사체계를 개발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긴장한 전투를 벌려 방대한 정보들을 정연하게 분석, 분류해놓음으로써 원격고려의료봉사를 위한 자료기지를 구축하였다.

또한 고려의학발전과 처방, 상담 등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고려의술》을 개발하였다. 수백가지의 질병에 따르는

한 전통의학을 빛내는데 기여하는 자랑한 성과로 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를 개선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일념밑에 고려의학과학원, 조선컴퓨터센터의 과학

적인 민족의학의 발전과 인민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정보기술을 리용하여 각지의 의료일군들에게 진단, 치료와 관련한 자료들을 지원해 주고 서로 교환함으로써 전반적인 고려의료봉사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되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체로 치료할수 있도록 편의를 보장해주어 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박원평

내가 본 두 제도의 나라

위대한 수령은 위대한 사상을 창시하고 위대한 사상은 숭고한 정신과 도덕을 낳는다.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이북인민들은 고상한 정신과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고있다. 나는 이것을 《수령결사옹위》, 《결사판철》, 《총포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들을 통해 잘 알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이북인민들이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묵숨결고 옹호보위하고있는 사실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무재들의 인민군병사들이 나라의 재민인 구호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산발과 싸움 이야기를 나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그때 17명의 병사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장소에 손에 꼭 틀어쥐고 산발과 마지까지 싸웠다고 한다. 나는 이북에 와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다. 뜻밖의 일로 화제가 발생했을 때 건물앞에서 절세위인들의 초상화부터 정중히 모셔내는 사람들과 수령님의 동상을 목숨으로 보위한 영웅비행사에 대한 이야기, 온 소대가 한날 한시에 영웅으로 댄 백금산 로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등

내가 본 두 제도의 나라 (3)

환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실앞으로 모여왔다. 수술실안은 자기 피부를 떼주었다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의료일군들은 1차수술로 38명에게서 피부를 떼내어 이식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식해놓고보니 38점이 아니라 41점의 피부가 붙어있었다. 세명이 남몰래 두번이자체 살점을 떼냈던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었다.

그후에도 나는 2009년 2월 24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하여 전신 45%, 36%의 3도화상을 입은 두명의 환자를 살려낸 해주시제 1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인간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환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50여일간의 나날인정를 비롯할 300여명의 종업원들과 해주시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쳤다. 한 환자에게는 7.3ℓ의 피가, 다른 환자에게는 3.2ℓ의 피가 수혈되었다. 환자들을 위한 의사업의회만 해도 80여회, 돈으로 환산할수 없는 막대한 고가약, 토끼고, 닭고, 수천알의 닭알, 물고기, 과일 등 갖가지 영양회복제들이 환자에게 무상으로 돌려졌다. 마침내 두 환자는 완쾌되어 조소에 다시 사회가 되었다. 이런 감동적인 사실에 접

하면서 나는 이북민족의 정신세계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름다운것임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그후에도 나는 도시처럼들이 농촌에 시집을 가고 처녀총각들이 특류영예군인들과 일생을 같이하며 사정에 처한 사람들을 회생적으로 구원해주는 소행들을 수없이 목격하였다.

환들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날 보통강유보도에서 산책을 하고있는데 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언젠가 여류문학자간에 리화녀재학교의 한 녀학생이 그만 물에 빠져졌는데 수습을 하려나오는데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눈을 뜨고 차마 볼수 없는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

두 제도에서 살아가는 나는 지금도 미덕이 감동처럼 흐르는 사회, 공화국의 품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궁지를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가슴뜨겁게 느끼고있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정규진